

12월의 주요 행사

무역 1조 달러 넘어 2조 달러 달성을 위한 '2011 품질지상좌담회'

국가 품질 관련 포상 운영체계 개선하고 다양한 기법을 개발·보급하며 인적자원 역량 강화



▲ '2011 품질지상좌담회'에 참석한 각계 대표 인사들. 사진 왼쪽부터 차례대로 김태규 한국품질경영학회 회장, 김창룡 한국표준협회장, 구자균 LS산전(주) 대표, 허경 기술표준원장, 김영신 한국소비자원장, 김영준 우리산업(주) 대표.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르네상스호텔 로터스룸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무역 2조 달러 실현에 기여하는 품질활동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011 품질지상좌담회'가 개최되었다. '무역 2조 달러 실현은 품질로'라는 테마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허경 기술표준원장을 비롯해 구자균 LS산전 대표와 김영준 우리산업 대표가 업계를 대표해서 참석하였고, 김영신 한국소비자원장이, 소비자를 대표해서, 그리고 김창룡

한국표준협회장이 협회를 대표해서 참석하였다. 발제와 사회는 한국품질경영학회 회장인 김태규 한남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 자리에서 허경 기술표준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원동력은 기업들의 부단한 품질경영 노력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창조적인 품질경영전략이 추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균 LS산전 대표와 김영준 우리산업 대표는 각기 품질경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으며 김영신 한국소비자원장은 과거와 현재 소비자들의 품질수준에 대해 비교했고 김창룡 한국표준협회장은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이르기까지의 품질경영이 이룬 성과를 소개했다. 허경 기술표준원장은 "우리 기업의 품질경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품질 관련 포상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기법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품질 관련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2011 품질지상좌담회'는 그동안의 품질경영정책의 장단점을 돌아보는 한편 향후 품질활동과 정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표준특허 창출전략 모색을 위한 '표준특허전략 세미나' 개최

'소리 없는 전쟁', 표준특허 분쟁사례 분석과 주요 국가들의 표준특허 동향, 전략방안 등 모색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20일 과천 기술표준원에서 최근 산업계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표준특허 분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창출전략을 모색하고자 '소리 없는 전쟁'이란 제목으로 표준특허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표준특허 또는 필수특허(essential patent for standards)는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로 표준규격을 따르는 장치, 또는 방법을 구현할 경우 반드시 해당 특허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특허를 말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표준특허 전문 변리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IT기업, 신기술제품 생산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R&D 또는 표준·특허 담당자를 대상으로 발표했다. 주요 나라들의 표준특허 동향과 우리의 표준특허화 전략, 표준특허정책과 지원 방안 등에 기술표준원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글로벌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국제표준화활동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표준화활동을 결산하기 위한 제10회 국제표준화기구 임원협의회

10년 이상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 4명에 공로패 수여

2011년 제10회 국제표준화기구 임원협의회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2011년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을 대상으로 국제표준 추진활동을 보고하고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자리로 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협회 이외에 국제표준화기구 정책위원과 의장, 간사, 컨버너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2011년 의장·간사활동 보고, 차기 협의회장 선출, 신임간사·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활동 보고를 통해 한국의 의장·간사와 P-멤버십 현황, 인쇄전자 TC 신설 등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임원협의회 회장은 ISO/TC 201/SC 9 원자현미경 의장인 이해성 전주대학교 교수의 연임이 결정되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 문영준 연구위원(ISO/TC204/WG17 교통정보) 등 3명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비즈니스모델 혁신·새로운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SMB업무 강화·신하조직에 대한 활동 검토 강화 등 IEC의 최근 동향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한편 지난 10년 이상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덕영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이재욱 인하대학교 교수, 최기선



▲ 제10회 국제표준화기구 임원협의회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최병철 한국조선협회 차장에 대한 공로패도 수여됐다.

이밖에 표준과 특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체의 국제표준화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개발된 기술에 대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제표준화기구 임원협의회는 앞으로도 국제표준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정례화, 다양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술표준원, (주)산청 '소방용 공기호흡장치' 등 41개 신기술에 NET 인증

전기·전자 6개, 정보통신 3개, 기계·소재 22개, 화학·생명 6개, 건설·환경 4개 분야

기술표준원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41개의 새로운 기술을 2011년도 제3회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선정하고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신기술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신기술로 선정된 인증기술은 대기업 12개, 중소기업 21개, 공동 8개이며 기술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6개, 정보통신 3개, 기계·소재 22개, 화학·생명 6개, 건설·환경 4개이다.

특히, 신기술(NET)로 인증받은 기술 중 (주)산청이 개발한 '소방용 공기호흡장치의 안전경보시스템(HUD)과 양압동작 공급밸브 제조기술'은 공기호흡장치의 공기를 항상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하는 기술과 공기 진량을 디지털신호로 표현하는 장치와 경보시스템의 통합으로 보다 안정적인 구조활동과 소방활동을 가능케 하여, 연간 수입대체 300억 원, 수출 200억 원 이상의 시장형성을 기대하게 한다.

코오롱건설(주)와 (주)티에스테크노가 공동 개발한 '전면주입구 가 형성된 튜브형 강관 록볼트 기술'은 볼트 내부에 물을 고압으로 주입하여 강관을 팽창시켜 암반에 강하게 밀착 후 정착시키는 기술로 재료가 경량이며 기존 정착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환경친화적 시공이 가능하다. 터널 건설 시 기존 수입제품의 대체효과와 시공효율 향상으로 국내 터널 급속시공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표준원은 그동안 신기술(NET) 인증을 위하여 신청·접수한 120개 기술에 대하여 1차 서류·면접심사 및 2차 현장심사, 그리고 3차 종합심사의 세 차례 심사를 실시한 뒤 선정된 기술을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로 공고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41개 기술을 신기술로 선정하였다.

기술표준원은 이로써 2011년에 303건의 기술을 심사하여 107건을 신기술(NET)로 인증하였다.